

민주화운동의 고귀한 뜻을 모아 현재화시키고 미래를 이끌어 나가야

지난 10월 8일(금),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으로 임명된 함세웅 신부와 기념사업의 의의와 역할 그리고 앞으로의 사업계획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또한 우리 사회의 개혁을 둘러싸고 커져가고 있는 듯한 사회적 갈등 등에 대한 의견을 들어본다. <편집자 주>

사업회를 이끌어가시게 되었는데 소감은?

이끌어 나간다고 보다는 함께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업회가 출범한 후 초대 이사장이신 박형규 목사님을 중심으로 임직원 모두가 나름대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처음 시작한 것만큼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난해의 송두율 교수 초청과 관련하여 오해를 받았던 부분도 있었지만 세월이 지나면 제대로 평가를 받을 것이라는 긍지를 갖고 있습니다.

지난 70, 80, 90년대 그리고 60년대의 4·19 정신, 그 전의 독립정신을 기초로 민주화운동에 헌신했던 선배들의 고귀한 삶을 기억하면서 현재화시키고 미래를 향해 창조적으로 이끌어야 한다는 소명으로 사업회의 임직원들, 민주화를 위해서 함께 애쓰셨던 동지들 그리고 국민 모두의 뜻과 염원을 받들어 열심히 노력하고자 합니다.

여러 민주단체와의 연대활동을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데?



이사장 직을 맡은 후 우리들과 뜻을 같이 했던 여러 민주화운동단체의 책임자들, 동지들 그리고 유가족, 민가협, 민가협의 부모님들과 가족들을 만났습니다. 그분들의 말씀은 “과연 지금이 민주화운동을 기념할 때인가, 민주화를 위해서 더욱 노력하고 또는 과거와 같이 앞장서고 투쟁해야 될 부분도 있지 않느냐?”는 사업회의 존재 자체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분들의 솔직한 지적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자 합니다. 바로 그런 문제의식을 삶의 주제, 행동의 주제로 삼아 반성하고 순국선열들과 민주인사들, 통일인사들에 대한 열정을 안고 뛰었던 초심을 간직하면서, 우리 사업회를 행정부나 국가기관, 모든 이웃 공동체의 모범이 되고 길잡이가 되는 이상적인 공동체로 만들어 나가자고 함께 다짐했습니다.

지난 3년 동안의 사업회 활동 중에서 의미가 있었던 면은?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갈등 속에서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사업회가 건강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것 자체가

가장 큰 의미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연구소, 사료관, 기념사업본부가 주축이 되어 민주화의 정신이 무엇인가, 민주화운동이 나아가야 할 길이 무엇인가, 과거의 자료를 어떻게 수집하고 활용해야 되는가를 고민하면서 쌓아온 기초 작업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공지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민주화운동 역사자료의 발굴과 보존이라는 면에서 일종의 선구자적인 역할을 통해 관계기관에 많은 자극도 주었다고 봅니다.

또한 아직 본격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지만 '민주화운동 기념관 건립기본계획안'을 준비한 것도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노력들은 앞으로 여러 민주단체들과 민주인들이 참여하는 (가칭) '기념관 건립범국민추진위원회'를 통해 기념관을 만들어갈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사업회가 주력해야 할 사업부문은?

박 목사님도 기념관이 중요하다고 강조해 주셨지만, 그것이 완성되면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자연스럽게 거기에서 정착되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기념관건립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회가 정말로 국민들에게 관심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사랑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민주화운동을 함께 했던 모든 분들에게 사업회는 나의 집, 우리의 집, 우리의 공간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해야 합니다.

사업회는 부산의 민주공원, 광주 5·18기념재단과 연계하여 서로의 경험과 체험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과정을 통해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을 위한 완전한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그런 마음가짐을 기초로 연대와 공유의 가치를 지향하는 사업들을 만들어 나갈 생각입니다.

나라 전체가 개혁법안을 둘러싸고 논쟁의 수준을 넘어 분열의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현재 우리 사회의 상황을 분열로 이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의 진통과 태동, 새로운 생명체를 위한 마땅한 진통의 과정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성서적으로 볼 때 우리에게는 축복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악의 세력이 알기 쉽게 드러나고 병이 심해져 수술 부위가 분명하게 나타나면, 수술이 필요한 부위를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몇몇 보수언론에 의한 악의적인 왜곡보도는 상한 음식만이 사람을 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독일의 어느 철학자의 말을 떠올리게 합니다. 상한 음식을 먹으면 사람이 병들어 죽게 되지만, 상한 언어, 상한 사고, 상한 소식, 거짓된 소식은 민족의 정신과 얼을 상하게 만들고, 썩고 부패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한 음식을 건강을 위해서 제거하듯이 상한 소식을 주는 언론에 대한 분명한 청산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 또한 민주주의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희망세상』 독자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은?

『희망세상』 독자 여러분이 말 그대로 희망을 갖고 이 세상의 희망이 되고 희망을 창출하는 주인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희망은 어떤 의미에서 인간의 존재의 근원이기도 하며 힘이며 에너지를 창출하는 원천이기도 합니다. 희망을 갖고 어려운 상황에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행복을 실현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또한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은 국민 모두의 관심과 참여 속에서 성취되는 민족적 과업입니다.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발전과 평화의 정착을 위한 노력에 많은 성원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정리 - 양금식〉